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선곡기준 및 행동

우소리¹ · 서루림^{2*}

¹이화뮤직웰니스연구소, ²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Listeners' Selection Criteria and Behaviors Related to Music Listening

So Ri Woo¹ · Lu Lin Xu^{2*}

¹Ewha Music Wellness Research Center., Seoul 03760, South Korea

²Dept. of Music Therapy, Ewha Womans Univ., Seoul 03760, South Korea

(Received January 12, 2024 / Revised February 11, 2024 / Accepted February 28, 2024)

Abstract Background: With the advancement of various technologies and media, we have entered an era of music appreciation that transcends physical spaces and devices. Following these changes,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listeners select and different parameters regarding their listening behaviors.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istening behaviors of listeners and the criteria for music selection.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12 adults aged 18 and older to examine listening behaviors and selection criteria during music listening. The survey consisted of 29 items including multiple-choice and open-ended questions. **Results:** It was found that listeners regularly listen to newly updated music as they have more access to them via various streaming platforms. In terms of listening situations, the majority listened to music while commuting (35%) or exercising (29%), both define as energy-consuming activities. All music elements including rhythm/tempo(28%), melody(26%), timber(25%) and lyric(20%) were considered with similar proportion for music selection. In terms of music elements. Furthermore, three categories of non-musical factors influencing music selection were identified, which are relational, cultural, and emotional. Relational(41%) and cultural(41%) factors showed to have highest impact respectivel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music listening behaviors and what they consider when selecting music.

Key words Music appreciation, Listening behavior, Selection criteria, Frequency analysis, Content analysis

초록 배경: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과 장치를 초월한 음악감상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이어 감상자들은 어떠한 기준과 필요에서 음악을 선곡하고 감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감상자가 음악감상 시 어떠한 감상행동을 보이며 선곡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방법:** 음악감상 시 감상행동과 선곡기준을 조사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성인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감상자는 스트리밍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꾸준히 새로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상 상황에 있어서는 주로 이동할 때가 88명(35%), 운동할 때가 74명(29%)으로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에서 음악을 감상하였다. 음악의 요소에서는 특히 리듬/템포가 81명(28%)으로 중요한 선곡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에는 총 3개의 범주(관계, 문화, 정서)가 생성되었으며 문화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동일하게 4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음악 플랫폼의 확장에 따른 음악 감상 행동과 선곡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음악감상, 감상행동, 선곡기준, 빈도분석, 내용분석

서 론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 감상 효과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Barker, 1989). 음악 감상은 가장 보편적인 음악 활동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위로와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Panksepp, & Bernatzky, 2002). 방송 기술이 발명되기 전인 1900년대 이전까지는 콘서트, 종교모임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음반 발매와 함께 플레이어를 통해 감상했다면 현재는 디지털 음악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음악감상이 디지털 음악 소비자들의 문화 향유 방식으로 정착되었다(Kang, 2020). 이에 따라 감상자들은 이동 중, 운동 중, 집안일을 하면서 등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음악을 듣는다(North *et al.*, 2004). 나아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소셜미디어(릴스, 쇼츠, 카카오토리, 등)를 통해 음악을 타인과 공유하며 쉽고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Jeong, & Han 2022).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개인시간이 증가된 상황에서 음악을 통한 이상적 공간 창출, 고립감 해소와 같은 감상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발견으로까지 확장되었다(Choc, 2021).

많은 연구자들이 감상자들의 감상 동기와 음악을 추구하는 이유를 연구하였고 가장 크게 음악이 감정적 매개체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있다(Wells, & Hakanen, 1991; Gagnon, & Peretz, 2023). 음악은 위로와 공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감상자의 성향, 기분, 선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chäfer, & Sedlmeier, 2010). 또한 음악감상에서 배경음악으로서의 감상은 집중력, 주의력, 생산성을 향상시켜 업무나 공부환경에서 효율성과 동기부여를 높인다고 하였다(Goltz, & Sadakata, 2021). 이렇듯 감상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이전의 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자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음악을 계속하여 감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악심리학 연구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음악

감상 행동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중에서도 Berlyne(1971)의 신경물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음악의 선호도는 개인의 활성화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복잡성의 원리가 등장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론은 Konecni(1982)에 의해 음악 선호도는 감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 초점된 이론이었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결국 감상자는 감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기분과 함께 사회적, 감정적, 인식적 조건 및 청취 환경을 통해 선호도를 형성한다고 한다(Gurgen, 2016).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음악 선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함께 탐구해왔다. 그 결과 음악의 다양한 역동적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종종 그 요인들은 음악과 관련된 요인이거나 음악의 참조적 측면이라고 불리는 감상자와 관련된 요인이었다(Rentfrow *et al.*, 2011; Cavett, 2022). 음악선곡을 위한 감상자 관련 요인으로는 감상자의 음악 선호도, 친숙도, 정서 상태, 감상 목적 등이 있었다(Deihl *et al.*, 1983; Schäfer, & Sedlmeier, 2010; Juslin, & Isaksson, 2014). 한편, 음악과 관련된 요인들은 음악의 미학적 측면, 복잡성의 수준, 지적 진행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Peretz *et al.*, 1998; Wu, & Chong, 2023), 이는 음악의 표현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음악 감상과 선곡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음악의 선호는 개인 내적 요소인 성격, 성향 기질과 함께 시대사회적, 상황적 특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음악을 선호하는 유형과 속성이 달라진다(Seo, 2005). 이와 함께 연구자들은 음악 장르에 대한 청취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음악적 취향과 선호도를 공식화하는 학습과 경험을 언급하였다(Schwartz, & Fouts, 2003; Atkinson, 2011). 학습과 경험은 환경적 요소들로 문화, 가족, 주변사람, 종교 등이 포함된다(Yoo, 201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초점

되어있고, 음악감상 시 감상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세부적 특성과 상황 즉, 선곡기준이 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상자들이 어떠한 기준과 필요에서 음악을 선곡하고 감상하는지 감상자의 감상행동과 선곡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감상 시 감상 행동 분석
 - 1-1. 감상자의 감상패턴 특성
 - 1-2. 감상자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
 - 1-3. 감상자가 선호하는 음악 분위기
 - 1-4. 음악감상 시 재생장치(Device)와 방법, 선곡된 음악의 비율
2. 음악감상 시 선곡 관련 서술적 문항
 - 2-1. 감상자의 선곡 유형
 - 2-2. 감상자의 음악동기
 - 2-3. 음악감상상황과 고려하는 음악 요소
 - 2-4. 음악감상 시 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

재료 및 방법

대상자 정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6개월 이내에 음악 감상경험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는 남성 47명, 여성 65명으로 총 112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였고 결측값 없이 모든 응답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s and basic background

| Characteristics | N(%) |
|-----------------|-----------|
| Gender | |
| M | 47(42%) |
| F | 65(58%) |
| Age | |
| 20'S | 61(48.0%) |
| 30'S | 48(37.8%) |
| 40'S | 3(2.4%) |

| Characteristics | N(%) |
|--|------------------|
| Music major | |
| Music major | 27(5%) |
| Non-music major (Humanities, STEM) | 84(94%) |
| None | 1(1%) |
| Duration of music education | |
| None | 19 (17.0%) |
| 1y | 20 (17.9%) |
| 2-4y | 32 (28.6%) |
| 5-7y | 23 (20.5%) |
| more than 8y | 18 (16.1%) |
| Type of music education | |
| Instrument lessons | 87 (68.5%) |
| Choir or vocal training | 10 (7.9%) |
| Orchestra or group lessons | 2 (1.6%) |
| None | 11 (8.7%) |
| Other (Theory lessons –music theory/harmony, All of the above experiences) | 2 (1.6%) |
| Recent participation in music activities | |
| None | 57(50.9%) |
| Singing | 21(18.8%) |
| Plyaing | 30(26.8%) |
| Music production | 4(3.6%) |
| Total(%) | 112(100%) |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글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비 조사를 시행한 뒤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8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 구성은 문항에 따라 명목척도 및 순서척도를 사용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관식 응답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SNS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자발적 참여 동의를 획득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정보, 감상행동, 선곡 구성 주기 등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감상 시 감상행동과 선곡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디자인을 가진 Greb, Schlotz, & Steffens(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연구 목적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참여자의 기

Table 2. Survey items and detailed question content

| Content | Items | Number of item |
|---|---|----------------|
| General information | Gender, age, major | 3 |
| Music background | Types of music education experience outside formal music education | 2 |
| Listening behavior | Recent participation in musical activities (within the last 6 months) | 9 |
| | Average daily music listening time | |
| | Music listening situation | |
| | Time of day for music listening | |
| | Primary genres and moods for music listening | |
| | Music listening devices | |
| Selection-related behaviors and music selection | Frequency of play-list updates | 3 |
| | Music playback methods (applications, radio, etc.) | |
| | Selection methods (descriptive) | |
| Motivations and states of listening | Desired moments for listening (descriptive) | 3 |
| | Frequency of updates for new songs and its proportion | |
| | Physical states | |
| Elements of music considered | Cognitive states | 3 |
| | Emotional states | |
| | Rhythm | |
| Repetitive listening behavior patterns | Melody | 4 |
| | Timbre | |
| | Lyric | |
| | Degree /intensity of repetitive listening | |
| Non-musical factors | Motivation for repetitive listening | 4 |
| | Factors for repetitive listening | |
| | Genre of music for repetitive listening | |
| Total number of items | Non-musical factors considered for music selection (descriptive) | 1 |
| | | 29 |

본정보 및 음악적 배경, 감상행동, 감상 동기 및 상태, 선곡 시 고려되는 음악의 요소, 재생패턴, 선곡 시 고려되는 비음악적 요인 총 8개의 항목에서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총 29문항을 구성하였다(Table 2). 이와 함께 검사도구인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음악치료학과 교수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음악중재전문가 1인에게 2차에 걸쳐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어 객관식 문항은 SPSS 22.0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제외한 응답은 모두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작성한 주관식 답변으로 질적연구 자

료 분석 방법인 코딩(coding segments)을 통해 내용분석하였다.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단일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행동으로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결 과

음악감상 시 감상 행동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감상 시 감상자의 행동을 분석해보고자 감상자의 감상패턴, 주로 감상하는 음악의 장르와 분위기, 재생장치와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SPSS 22.0을 통해 빈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감상패턴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감상패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감상자들은 52명(46.4%)의 가장 높은 비율로 1시간 이내 음악을 감상하였고, 가장 낮은 비율로 12명(10.7%)의 감상자가 3시간이상 음악을 감상하는 패턴을 보였다. 주로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대는 저녁시간이 54명(48.2%)의 비율로 높았으며, 새벽시간대가 6명(5.4%)의 비율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음악 감상 상황 현황을 알아보고자 총 5개의 상황(운동할 때, 이동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쉴 때)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동할 때가 88명(35%)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공부할 때가 29명(11%)으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Table 3).

Table 3. Listening patterns of the listener during music appreciation

| Category | Frequency(%) | |
|--|--------------|-----------|
| Average daily music listening time | Within 1h | 52(46.4%) |
| | 1-2h | 34(30.4%) |
| | 2-3h | 14(12.5%) |
| | More than 3h | 12(10.7%) |
| | Total | 112(100%) |
| Preferred time for music listening | Evening | 54(48.2%) |
| | Afternoon | 35(31.3%) |
| | Morning | 17(15.2%) |
| | Dawn | 6(5.4%) |
| | Total | 112(100%) |
| Frequency of listening according to different contexts | Commuting | 88(35%) |
| | Exercising | 74(29%) |
| | Relaxing | 33(13%) |
| | Working | 30(12%) |
| | Studying | 29(11%) |
| | Total* | 254(100%) |

*Multiple responses.

● 감상자가 주로 선곡하는 음악의 장르

감상자의 음악 감상 특성을 알아보고자 주로 선곡하는 음악의 장르에 대해 가장 보편적이라 생각되는 8개의 장르(클래식, 국악, 트로트 POP(락, 힙합, 댄스), 발라드, 종교음악, 뉴에이지, EDM(Electronic Dance Music, 클럽음악)와 참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타 카테고리를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은 다중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수집된 결과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49개

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감상자가 주로 선곡하는 음악의 장르는 82(33%)명이 선택한 POP(댄스, 힙합, 락)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트로트가 전체 112명중 1명(1%)이 선택하여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였다(Table 4).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the genres of music predominantly selected by the listener

| Category | frequency(%) |
|---|--------------|
| POP(rock, hip-jop, dance) | 82(32.9%) |
| Ballad | 67(26.9%) |
| Classical | 42(16.9%) |
| Religious music | 26(10.4%) |
| New age | 13(5.2%) |
| EDM(Electronic Dance Music, club music) | 8(3.2%) |
| Korean traditional music | 2(0.8%) |
| Trot | 1(0.4%) |
| Other(jazz, folk song, musicals) | 8(0.8%) |
| Total* | 249(100%) |

*Multiple responses.

● 감상자가 주로 감상하는 음악의 분위기

감상자가 주로 감상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다중선택지와 기타항목을 추가하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총 246개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상자가 주로 감상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93명(38%)이 선택한 차분하고 진정적인 음악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강렬한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음악이 9명(4%)으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였다(Table 5).

Table 5. Listening device for music listening

| Category | frequency(%) |
|--|--------------|
| Calm and genuine music | 93(38%) |
| Music that offers a new perspective with positive lyrics | 51(21%) |
| Lively and energizing music | 49(20%) |
| Music that provides spiritual strength | 26(11%) |
| Azure and melancholic music | 18(7%) |
| Music that purifies intense emotions | 9(4%) |
| Total* | 246(100%) |

*Multiple responses.

● 음악감상 시 재생 장치(Device)와 방법, 선곡된 음악의 비율

본 연구에 참여한 자들의 응답에 의하면 감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Device)는 전체 112명 중 78명(69.6%)이 선택한 헤드폰과 이어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응답은 핸드폰과 노트북에 내장된 스피커로 전체 응답자 중 2명(1.8%)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음악감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생방법에 대해 조사하기위해 총 4개의 보기(스트리밍앱, 동영상, MP3, 라디오)와 응답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71명(63.4%)이 선택한 스트리밍앱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되는 방법은 라디오로 전체 응답자 중 1명(0.9%)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음악을 업데이트 하는 주기는 44명(39.9%)이 응답한 월 2-3회가 가장 많았고, 매일 업데이트 한다가 18명(16%)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외에 2명이 기타 응답을 통해 업데이트 하지 않음, 월 1회라고 응답하였다(Table 6).

Table 6. Listening device for music listening

| | Category | n(%) |
|------------------|--|-----------|
| Listening device | Headphones, earphones | 78(69.6%) |
| | Bluetooth speakers | 32(28.6%) |
| | Other (built-in speakers on phone or laptop) | 2(1.8%) |
| Playback methods | Streaming app | 71(63.4%) |
| | Video | 36(32.1%) |
| | MP3 | 2(1.8%) |
| | Radio | 1(0.9%) |
| | All of the above | 2(1.8%) |
| Update frequency | Daily | 18(16%) |
| | 2-3 times a week | 27(24.1%) |
| | 2-3 times a month | 44(39.9%) |
| | 2-3 times a year | 21(9.9%) |
| | Others (1 times a month, no update) | 2(2%) |
| Total(%) | | 112(100%) |

음악감상 시 선곡 관련 서술적 문항

●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선곡 유형

감상자의 선곡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체 참여자 112명을 통해 수집된 146개의

문장을 내용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음악 선곡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총 7개의 하위요인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Table 7). 첫 번째 선곡 유형은 새로운 음악을 선곡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어 미디어 추천, 직접 검색, 관계적 추천으로 나뉘었다. 그 중 49명(34%)이 작성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미디어의 추천은 유튜브나 스트리밍앱의 알고리즘을 통한 선곡방법이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인 선곡유형은 6명(4%)의 참여자가 선택한 친구, 애인, 주변인 등의 관계를 통해 음악을 선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선곡유형은 기존의 곡을 감상하는 감상자로 구분되어 수록된 곡, 의미 있는 곡, 떠오르는 곡을 중심으로 선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이전에 만들어놓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재생하는 선곡방법을 사용하였으며, 38%의 참여자가 기존의 곡을 통해 선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8).

● 감상자의 음악 감상 동기

음악감상 시 감상 동기에 대한 감상자 개인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언제 음악을 듣고 싶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응답은 내용분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112명이 진술한 문장은 총 115개가 수집 되었고 미흡한 2개의 응답을 제외한 113개를 내용분석하였다. 내용분석결과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동기에 대해 ‘신체적 필요 충족’, ‘내재적(심리적) 필요 충족’, ‘음악적 필요 충족’의 총 3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먼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신체적 필요 충족’은 51건(45%)으로 피곤하거나 지칠 때, 운전하면서 에너지를 올려야 하는 상황 등에서 감상 동기를 느끼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내재적(심리적) 필요 충족’은 40건(35%)으로 마음이 심란하거나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감상 동기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적(요소중심) 필요 충족’은 22건(19%)으로 음악의 특정 요소(멜로디, 선율, 등.)가 떠오르거나 음악적 자극을 받고 싶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9).

● 음악감상을 원하는 때와 선곡 시 감정상태와 에너지수준에 따라 고려되는 음악 요소

감상자가 음악감상을 원하는 상황과 감정 및 에너지 상

Table 7. Manipulative definition of music selection types during listening

| Categories | Operational definition |
|------------------|--|
| New songs | Method of selecting music by the listener through direct search or direct recommendations from media or acquaintances |
| Existing songs | Method of selecting music from playlists previously created by the listener |
| Accidental songs | Situation where music is encountered first unintentionally, not through intentional listening from searching or direct recommendations |

Table 8. Categories and frequencies of music selection types during music appreciation

| Dategoreis | Subcategories | Participant response example | Frequency(%) |
|------------------|------------------------------------|---|--------------|
| New songs | Media recommendations | YouTube, streaming app algorithms | 49(34%) |
| | Direct search | Searching for new songs, searching for songs that match preferences | 29(20%) |
| | Relational recommendations |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or acquaintances | 6(4%) |
| Existing songs | Included songs: Songs in playlists | Random play from my playlist | 38(20%) |
| | Meaningful songs | Songs with significant personal meaning from playlists | 7(5%) |
| | Emerging songs | Songs that come to mind, wanted to listen to at the moment | 11(8%) |
| Accidental songs | Heard songs | Songs heard in cafes, on the street, on the radio, in everyday life | 6(4%) |
| Total* | | | 143(100%) |

*Multiple responses

Table 9. Participants' narratives on motivations for music listening

| Category | Participant response example | frequency(%) |
|----------------------------------|--|--------------|
| Physiological needs | - When tired and exhausted - When wanting to boost energy | 51(45%) |
| Psychological needs | - When feeling troubled - When experiencing stress | 40(35%) |
| Musical (element-centered) needs | - When desiring to feel a sentimental melody - When needing musical stimulation - When seeking inspiration | 22(19%) |
| Total* | | 113(100%) |

*Multiple responses

태에 따라 고려되는 음악요소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첫 번째 음악감상을 원하는 때를 신체, 인지, 정서 3개의 상태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12명 중 가장 높은 빈도수로 67명(40%)이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음악을 감상한다고 하였고,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감정일 때 음악을 감상하는 수준이 48명(2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감정 및 에너지 상태에 따라 고려되는 음악의 요소에 대해서는 20%의 유사한 비율로 리듬/템포, 멜로디, 음색, 가사 순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0).

● 음악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

감상 시 감상자의 음악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에 대해 감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알아보았다. 전체 참여자 112명중 질문에 부합하지 않은 응답을 작성한 1명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111명을 통해 135개의 문장이 수집되었다. 그 결과 감정적, 관계적, 문화적 총 3개의 범주가 생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Table 11). 수집된 응답 중 참여자가 인식하는 음악 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에서 음악적 요인을 함께 작성한 2개의 내용을 제외하고 총 133개의 내용을 빈도 분석하였다. 범주에 따른

Table 10. Situations and musical elements for music selection

| Category | | N(%) |
|---|---|-----------|
| Moments for music listening impulse | When thoughts are complex or when one wants to clear the mind | 67(40%) |
| | According to physical energy levels | 53(32%) |
| | When experiencing negative or uncomfortable emotions | 48(29%) |
| | Sub-total* | 168(100%) |
| Considered music elements for selection | Rhythm/tempo | 81(28%) |
| | Melody | 74(26%) |
| | Timbre/voice | 72(25%) |
| | Lyrics | 58(20%) |
| | Sub-total* | 285(100%) |

*Multiple responses

Table 11. Manipulative definition of non-musical factors influencing music selection

| Category | Operational definition |
|-------------------|---|
| Emotional factors | Situation related to all emotions, feelings, and moods |
| Cultural factors | A specific group or community with common interests, such as a company, school, religion, etc., that one desires to belong to or is affiliated with |
| Cultural factors | Relationships centered around intimacy, camaraderie, and empathy with friends, romantic partners, family, etc. |

Table 12. Categories and frequencies of non-musical factors influencing music selection

| Category | Unit of meaning | Participant response example | Frequency |
|--------------------|---|--|-----------|
| Cultural factors | Media, mass media, trends, relig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king cues from songs shared on social media - Curating music centered around trending musical trends - Music that accompanied memorable scenes from dramas or movies - Religious activities | 54(41%) |
| Relational factors |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colleagues, romantic partn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gs that close friends recommend as enjoyable - Influence from friends who recommend or engage in band activities together - Music conversations shared with someone whose musical taste aligned with mine | 54(41%) |
| Emotional factors | My emotional state, mood based on weather, personal preferen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emotions and feelings when listening to music - Favorite specific composers styles - My mood based on the weather of the day | 21(16%) |
| Others | None | | 4(3%) |
| Total* | | | 133(100%) |

*Multiple responses

빈도수는 외부 중심의 문화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54건 (4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동일한 빈도수의 결과를 보인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음악선곡이 개인 중심보다 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중심의 감정적 요인은 21건(16%)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Table 12).

고찰

본 연구는 1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선곡기준 및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Kang, 2020)와 같이 미디어의 발전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감상자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감상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악을 감상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선행연구(North *et al.*, 2004)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음악을 감상하였는데 특히 이동할 때, 운동할 때와 같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각각 88명(35%), 74명(29%)의 유사한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에 음악이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악감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효율성과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선행연구(Goltz, & Sadakata, 2021)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음악선곡 시 장르와 관련하여 50%이상의 감상자들이 주로 POP(락, 힙합, 댄스), 발라드와 같은 대중가요를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중가요는 사회적, 감정적,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는 음악으로 이는 시대사회적, 상황적 특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선호 유형을 형성한다는 선행연구(Seo, 2005, Gurgun, 2016)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음악 선곡 시 기준이 되는 음악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감상자는 주로 차분하고 진정적인 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동할 때, 운동할 때와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에 반드시 빠른 음악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감상자들은 스트리밍앱과 유튜브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음악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로운 곡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시대의 변화가 나타내는 감상행동의 변화임을 보여준다.

음악선곡에 있어서 고려되는 음악의 요소를 조사한 결과 4개의 요소(리듬/템포, 멜로디, 선율, 가사)가 모두 고려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리듬/템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리듬/템포가 인간과 음악을 이어주는 연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감상 시 선곡에 관여하는 비음악적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3개의 범주(문화적, 관계적, 감정적)가 생성되었다. 이는 음악선곡을 위한 감상자 관련 요인이 한가지

가 아닌 다수의 요인을 포함한다는 선행연구(Deihl, *et al.*, 1983; Juslin, & Isaksson, 2014; Schäfer, & Sedlmeier, 2010; Gurgun, 2016)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음악선곡을 위한 비음악적 요인이 감상자를 둘러싼 상황적 특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선호유형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Seo, 2005)를 뒷받침한다. 특히 문화적, 관계적 요인의 빈도수가 54명(41%)으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온 것은 본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음악 소비자들의 문화 향유 방식에 민감하게 따르는 20-30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감상자가 가진 음악적 배경 비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다 일치된 비율의 참여자 모집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일반화된 결과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 모집 확장을 통해 연령대별 음악감상 행동과 선곡기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112명을 대상으로 음악감상 시 감상자의 선곡기준 및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감상자의 감상패턴, 사용되는 재생기기 등 선곡과 관련된 요인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앱 및 플랫폼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음악 선곡 요인 중에서 리듬이 인간과 음악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감상자의 선곡기준과 행동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tkinson, W. 2011. The context and genesis of musical tastes: Omnivorousness debunked, Bourdieu buttressed. *Poetics* 39(3): 169-186.
- Barker A. Plato, B.A. 1989. In Barker A. (Ed.), *Cambridge readings in the literature of music. Greek musical writings: I. The Musician and his Art* (pp. 124-16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lyne D. E. 1971. *Aesthetics and psychobiology*. New

-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 Cavett, E. 2022. Desire, gratification and the moment: A music analytical and psychological enquiry into the role of repetition in the music of Howard Skempton, with a response by the composer. *Interdisciplinary Science Reviews* 47(2): 147-166.
- Choe, H.J. 2021. The music listener's experience of listening to music changed by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281-293.
- Deihl, E.R., M.J. Schneider, and K. Petress. 1983. Dimensions of music preference: A factor analytic study. *Popular Music & Society* 9(3): 41-49.
- Goltz, F. and M. Sadakata. 2021.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studying? A portrait of how people use music to optimize their cognitive performance. *Acta Psychologica* 220: 103417.
- Greb, F., Schlotz, W., & Steffens, J. 2018. Pers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the functions of music listening. *Psychology of Music*, 46(6), 763-794.
- Gurgen, E.T. 2016.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 of music listening: Reasons for listening to music.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66): 229-242.
- Jeong, M.H. and K.H. Han. 2022. Examples of popular music marketing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nd its promotional effect: Focusing on Instagram, YouTube, and TikTok. *Culture and Convergence* 44(10): 729-744.
- Juslin, P.N. and S. Isaksson. 2014. Subjective criteria for choice and aesthetic judgment of music: A comparison of psychology and music students.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36(2): 179-198.
- Kang, Y.G. 2020. A study on the popular music consumers in the digital era: Focusing 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35: 7-43, 10.15400/mccs.2020.12.35.7
- Konečni, V. J. 1982. Social interaction and musical preference. In *Psychology of music* (pp. 497-516). Academic Press.
- North A.C., D.J., Hargreaves, and J.J. Hargreaves. 2004. Uses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22(1): 41-77.
- Panksepp, J. and G. Bernatzky. 2002. motional sounds and the brain: The neuro-affective foundations of musical appreciation. *Behavioural Processes* 60(2): 133-155.
- Peretz, I., D. Gaudreau, and A.M. Bonnel. 1998. Exposure effects on music preference and recognition. *Memory & Cognition* 26(5): 884-902.
- Rentfrow, P.J., L.R. Goldberg, and D.J. Levitin. 2011. The structure of musical preferences: A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6): 1139.
- Schäfer, T. and P. Sedlmeier. 2010. What makes us like music? Determinants of music preference.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4(4): 223.
- Schwartz, K.D. and G.T. Fouts. 2003. Music preferences, personality style, and developmental issues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205-213.
- Seo, S.M. 2005.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2): 1-14.
- Wells, A. and E.A. Hakanen. 1991. The emotional use of popular music by adolescents. *Journalism Quarterly* 68(3): 445-454.
- Wu, Y. and H.J. Chong. 2023. Affective responses to singing voice in different vocal registers and mod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42(1): 75-82.
- Yoo, H.J. 2018.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lyrics and its role in song listening.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